



포이에마[예수교회]

가정예배 순서지

찬양 |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기도 | 하나님, 우리가 먹을 때나 놀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배우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기 | 고린도전서 10:31~33

◆ 배경: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음식은 먹어도 될까, 안 될까?” 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말해요.

[개역개정] ³¹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³²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³³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쉬운성경] ³¹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³²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³³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질문나눔

1.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 걸림돌(거치는 것)이 되지 말라고 했나요?
2.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구했나요, 아니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삶의 이야기 |

1. 집이나 학교에서 하는 평범한 일(밥 먹기, 숙제하기, 친구와 놀기 등) 중 하나를 골라, 어떻게 하면 그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2.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 마음이 상한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을 떠올려보고 이번 한 주,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지 정해 봅시다.

축복 | ()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해!

마침기도 |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고 공부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1.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2번** 읽습니다.
2.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1번** 읽습니다.
3.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포이에마[예수교회]

가정예배 순서지



입례

찬양 | 입례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기도 |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서로를 더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기 | 고린도전서 12:14~20

◆ 배경: 고린도교회에는 서로 잘났다고 비교하며 다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우리 몸에 손, 발, 눈, 귀가 모두 필요한 것처럼 교회 안의 모든 사람도 다 필요하고 소중하다고 말해요.

[개역개정] ¹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¹⁵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¹⁶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¹⁷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¹⁸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¹⁹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²⁰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쉬운성경] ¹⁴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¹⁵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¹⁶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¹⁷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들겠습니까?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¹⁸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 안에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¹⁹ 모든 것이 하나의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 있겠습니까? ²⁰ 그러나 지금 그런 것처럼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질문나눔

1. 만약 온몸이 전부 눈이거나 귀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2. 이 말씀에서 '발'과 '귀'는 무슨 말을 하나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 몸의 일부가 아닌가요?

삶의 이야기 |

1. 손, 발, 눈, 귀처럼 우리 가족은 저마다 잘하는 것이 달라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좋은 점을 서로에게 말해봅시다.
2. 우리 몸의 지체가 각자 맡은 일을 하듯, 우리 가족도 각자 맡은 일이 있어요. 이번 한 주, 우리 가족 안에서 내가 맡아 섬길 일 한 가지를 정해 봅시다.

축복 | ()이/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기쁘게 섬기며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해!

마침기도 |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꼭 필요한 자리에 두셨음을 믿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게 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아끼는 한 몸 같은 가족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소리 내어 **2번** 읽습니다.
2. 말씀이 마음에 남도록 천천히 눈으로 **1번** 읽습니다.
3.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쉬운성경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